

王建과 王山城 遺蹟

李 敦 采

(郷土史 研究 委員)

“王山城은 王建과
甄萱이 羅州를 占
據하기 위하여 激
戰을 버릴 때 構
築한 城郭이다.”



王山城은 新安郡 押海島에 있는 옛날의 성터다.

押海島는 그 옛날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라고 한다.

이 처럼 아름다운 섬(島) 押海島는 모래섬이라는 傳說과 함께 이 섬에서 살아 남은 이 나라 王의 아들과 王子와 王妃에 열킨 사랑과 인연, 그리고 王妃의 애타는 지정어린 恨맺은 “비비각시”의 傳說에 담겨진 結婚이야기부터 始作된다.

押海島에는 王과 龍, 龍은 王의 象徴이다. 王山城은 옛 이름 王山(現 押海面 古耳島 所在)에 쌓아진 조그만한 城을 말한다.

뒷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王山城의 記錄을 後三國 時代의 대봉국과 더불어 弓裔와 王建이 대치하는 열키고 열킨 戰爭의 爭點에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하나가 新羅 統一을 純粹하게 爭取하는 一千年에 弓裔

가 設立했던 部族 나라의 酋長으로 보여지는 그 當時 서울 鐵原(現 忠清道 地方)이 무너지고, 王建이 勝利한 西紀 818年 6月 15日의 역사 記錄에서 그 성터의 史蹟을 찾아 보기로 한 것이다.

事實上 王建은 누구인가? 또한 우리 新安郡 古耳島에 남아 있는 王山城은 누가 設築했고, 그 城의 防備, 防築의 主人公은 누구인가? 押海島 모래 섬에는 龍에 얽힌 마을 이름들이 많아 예컨대 가룡리, 신룡리, 복룡리 그 뿐인가!

靑銅器 時代의 遺物群이나 先史 時代의 遺蹟 등은 말할것도 없고, 송공리, 동서리 등지에 수 많은 支石墓(고인돌)와 함께 가지가지의 장사(역도), 선들, 說話, 傳說, 信仰, 口傳 등등 말하자면 옛날 壓海縣이란 部族 集團의 한 아름다운 部族의 삶의 터전인 것이다.

이 처럼 多樣한 後三國 時代 遺蹟은 隣接 羅州市 多侍面 伏岩里 古墳 發掘에서도 確定되었으니, 하나의 部族 社會를 이루는 목지국(옛 榮山江 流域 所在)의 後三國 時代에 連結된다.

王建과 甄萱의 決勝 決敗의 激戰 地域으로서의 國土 爭取 戰略에 起因한 성터 構築이 그 核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結論부터 말해 王山城은 王建 自

身이 構築했다는 一部 史蹟의 傳說이 있으며, 또다른 傳說은 王建의 작은 아버지인 王望의 構築說도 있다.

이처럼 엇갈린 王山城에 대한 史蹟 證據는 記錄上의 確實한 說問이 없어 그 事實은 確定치 않다.

現在 그 성터의 痕迹이 남아 있는 것은 지금부터 千年 餘前의 遺蹟과 西·東북에 이어지는 防壁 位置와 그 戰略的인 指定과 位置 등이 그 당시의 戰略上의 史蹟 現場을 우리들 後孫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王山城은 大體로 高麗 以前의 三韓 時代 또는 後三國 時代의 섬으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성터 중 흔히 볼 수 없는 오래된 성이라는 것이 이 성터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

성터는(높이 80m, 폭 곡식 山城) 統一 新羅 末期에 高麗가 王建과 後百濟의 甄萱이 羅州를 占據하기 위해서 강한 激戰을 버릴 때 壓海郡과 隣接한 現 新安의 여러 部族들과의 跋行을 막기 위한 防牌로서 構築한 城郭이 틀림 없다.

이처럼 多樣한 王山城의 記錄과 傳說에 엇갈린 것 역시 王建의 叔父인 王望, 또한 部族間에 이어진 王山城의 뒷 이야기들이다.

예컨대 王望이 무서운 王建에 대한 抵抗 基地로서 王山城의 傳說이나, 또 이곳에서 軍糧費나 軍馬를

기르던 270간에 달하는 軍事 基地의 痕迹 등이 오늘의 王山城, 石築城의 遺蹟임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文化 遺蹟 總攬)

높이 1.5m, 폭 3m라고 調査 報告된 王山城의 實狀은 알 수 있으나 王望에 대한 務安郡 望雲面 戰鬥나 咸平郡 古耳里 무덤(王望)이나 古市라는 옛마을 이름 傳說은 그 記錄이 없어 그 證據가 稀薄하다.

그러나 이 城은 地域的인 位置와 戰略的인 側面에서의 存在 價値는 무척 高貴한 選定인 것이 分明하다.

둘째, 50m 程度의 王山城은 바다에 연한 東·南쪽은 山陵城을 築城되었고, 西·北쪽은 王山の 山麓 部分으로 築造되어 있다.

또한 城 中央部는 不定形으로 溪谷을 包容한 布曲式 山城形인 것이 特色이다.

城壁은 1m 내외의 自然石과 50×20m 程度의 雜石으로 構築되어 있는 것도 또한 옛 新羅 末期의 古典的인 城郭 構築의 正確性을 옛 傳說 아닌 現場 資料 學習의 記錄物로 이제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남아 있는 城築은 높이 1.5m, 폭 3m 程度의 돌무덤일 뿐 大部分의 城郭은 그 痕迹이 없는 것이 遺憾스럽다.

그리고 王山の 山勢는 아주 얇은 平面 構造의 바위산으로 두르고, 內

陸 山勢 그것이다.

이 山の 展望은 押海島의 屏風, 梅花, 馬山島는 물론 智島, 蟬島 등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이 特色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일천년 전의 城郭터가 남아 있는 王山城의 遺蹟을 保存하는 作業 또한 우리들이 勸當해야 할 課題인 것이 分明하다.

요즈음 K·B·S TV 1에서 高麗 太祖 王建이 放映되고 있다.

高麗 太祖 王建이 그 옛날 舊族 社會에서 弓裔의 拙夫였던 王建에게 敗하고 全羅道 一帶를 始發로 高麗 太祖 王國의 舉國을 形成한 우리 나라 一代 드라마극의 사실에 放映되고 있다.

事態와 흐름 그리고 現代에 사는 우리 周邊에 다 함께 높아지는 TV의 취향과 함께 그 옛날의 王建이 바라본 王山城의 高貴함과 더불어 더욱 불타오르는 이 나라 歷史의 變遷史에 또 하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는 느낌을 다함께 갖게 하는 것이다.

그 옛날 押海島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은 부척 바쁘고 시끄러운 하나의 變遷하는 섬마을로 變身하고 있다.

오……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時代史的인
소용들이 속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
움을 찾아봄이 어떠할까?

우리 다 함께 옛 조상들이 남기

고 간 민족의 뿌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山과 들녘속에서 하나의 아름
다운 押海島의 한 나라를 찾아봄도
할 것이다.

향토 문화

佛 教 文 化

編 輯 者

◆ 都草 萬年寺

화도 부두에서 도보로 한 시간.

김해 김씨 문중산을 돌아 용당산
(龍塘山)을 바라보고 맑은 물 곱게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골짜기에 들
어서면 가슴 열리는 깨끗한 공기가
어느덧 사바세계를 벗어난 것 같다.

'뒷까꿈'산과 '되내기'로 넘는 고갯
길이 실뱀처럼 구부러져 있는 곳이
다.

선산, 뒷산, 용당산이 마을을 감싸
고 있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형국으로 보인다.

만년사는 용당산 중허리에 아담
하게 자리잡고 있다.

1948년 문귀녀(文貴女) 여사가
서른 아홉 되던 해에 그의 지극한
불심과 신도들의 협조로 지어진 절
이 현재의 만년사이다.

노만사와 함께 조계종에 속한 민
년사는 대지 400평에 건평 45평(7
동)이다.

1962년 10월 29일 문공부에 등
록을 필하였으며, 현재의 신도 수는
160 여명에 달한다.

이 절이 들어서기 전의 일이다.